

봉사·결혼... 휴식기 더 바쁜 KIA 선수들

양현종 기부활동·연탄배달
최형우 등 야구캠프 재능기부
김선빈 15일 아들 돌잔치
안치홍 잇단 시상식 분주
정용운·곽정철 등 결혼식도

휴식기에도 바쁜 '호랑이 군단'이다.
12월과 1월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공식적인 휴식기다. 바쁘게 시즌을 보냈던 선수들이 잠시 숨을 돌리고 재충전을 하는 시간. 하지만 선수들은 그라운드 밖 일정으로 바쁘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은 휴식기를 봉사활동으로 열었다.
지난 1일 오전 '사랑의 쌀 나누기' 활동을 위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선수들은 오후에는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에도 나서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부지런히 움직였다.

선수 상조회 차원에서 진행된 공식적인 일정 외에도 개별적으로 좋은 일에 나선 선수들도 있다.

양현종은 1일 구단 장내 아나운서인 MC이슈가 진행하는 기부활동에 참여, 광주 남구 사직동 지역 소외계층에 연탄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양현종은 지난 4일에는 셋째 아들을 얻기도 하는 등 바쁜 휴식기를 보내고 있다.

2일에는 '2018 KIA타이거즈 최형우와 함께하는 베이스볼 캠프'가 전주 진북초에서 열리면서 최형우와 함께 김선빈, 김윤동, 김민식, 유민상이 야구 꿈나무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선빈은 '아빠 로서도 바쁘다. 최근 미혼모 한부모 가정을 위해 분유를 기부한 김선빈은 오는 15일에는 아들 서준군의 돌잔치를 치른다.

4일에는 올 시즌 선발로서 가능성을 보



지난 1일 장내 아나운서 MC 이슈(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연탄 배달 봉사활동에 나선 양현종.



안치홍이 2018 플레이어스 초이스 퓨처스리그 선수상 시상식에서 전상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지도자로 변신한 곽정철이 9일 결혼식을 올린다.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해 분유를 기증한 김선빈.

여준 한승혁이 임기영, 김세현과 서울 고척돔으로 가서 프로야구선수협회가 개최한 재능기부·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빛을 나누는 날' 행사에 참여했다.

안치홍은 시상식 일정으로 바쁜 12월을 보낼 전망이다.

지난 3일 2018 플레이어스 초이스 퓨처스리그 선수상 시상자로 후배 전상현과 기념촬영을 했던 안치홍은 4일에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조이제약 바이온상 수상자로 단상에 올랐다.

안치홍은 오는 10일 열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도 단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치홍은 올 시즌 130경기(타율 0.342, 169안타, 23홈런, 118타점)를 기록했다. 안치홍의 118타점은 국내 2루수 최다 타점 신기록이다.

KIA 선수들은 주말에는 하객으로 바쁜 김선빈은 오는 15일에는 아들 서준군의 돌잔치를 치른다. 9일에는 올 시즌을 끝으로 투수 코치로 변신한 곽정철이, 15일에는 외야수 이준호가 백년가약을 맺는다. 내년 1월 13일

에는 내야수 홍재호가 '뽕잘남'이 된다. 여기에 KIA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옛 동료들의 결혼식도 기다리고 있다.

LG 투수 진해수가 8일, 한화로 이적한 투수 임준섭이 9일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웨딩마치를 올린다. 배요원·곽정철 코치의 결혼식 날짜가 겹쳐 선수들은 동선 고민에 빠졌다.

올 시즌 트레이드로 삼성으로 이적한 뒤 득점까지 했던 투수 한기주도 내년 1월 12일 광주에서 뒤늦게 식을 올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선수협 '빅이닝 프로그램' 실시 훈련·진로 준비 위해 13·14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은퇴 후 진로 준비와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빅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빅이닝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열린 베이스볼 랩에서 진행되며 교육, 코칭, 진로, 창업 전문가들이 참가해 아마추어 지도자

과정, 레슨장 창업 등에 대한 강의를 한다.

장비를 이용한 퍼포먼스 개선 실습과 트레이닝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또 각 구단별로 도입하고 있는 데이터 야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이며, 현역 프로선수와 은퇴 선수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지도자 및 아마추어 선수 까지 참가 대상이 확대됐다.

선수협 김선운 사무총장은 "진로와 훈련 방법을 고민하고 데이터 야구에 관심이 있는 현역 및 은퇴선수, 아마추어 코치, 아마추어 선수 등 모든 분들에게 야구 산

업 종사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빅이닝 프로그램이 건강한 전문 야구인들을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빅이닝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야구 종사자와 선수들은 선수협(02-707-1994·조영주 팀장)에 문의하면 참여 방법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산행안내

- 12월 8일(토)
▲광주호산회 12월 8일(토) 고성 연화산 산행
▲광주Ki산악회 12월 8일(토) 경남 30년만에 개방된 남해 만리해상공원, 두모계곡, 부소암코스 산행
12월 9일(일)
▲광주산악회 12월 9일(일) 보성 봉화산 호반정맥 산행
▲광주산악회 12월 9일(일) 남해 금산(100대명산)
▲광주산악회 12월 9일(일) 거창 보배산 & 금

- 12월 11일(수)
▲광주청목산악회 12월 11일(수)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팔운산(328m)
12월 22일(토)
▲광주호산회 12월 22일(토) 해파랑길19코스
12월 19일(수)
▲광주청목산악회 12월 19일(수)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팔운산(328m)
12월 23일(일)
▲광주자연보전단사회 12월 23일(일) 갈남산&투봉
12월 22일(토)
▲광주호산회 12월 22일(토) 해파랑길19코스
12월 12일(수)
▲광주청목산악회 12월 12일(수) 전남 고흥 팔영산
12월 15일(토)
▲광주호산회 12월 15일(토) 완도 소안도 섬산행
12월 16일(일)
▲전남산악회 12월 16일(일) 구례 갈미봉, 깃대봉
12월 16일(일)
▲광주호산회 12월 16일(일) 완도 소안도 섬산행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이동규(811226-XXXXXX)
최후주사: 목포시 비바로 157, 203호(상동, 하이트빌)
등속기준지: 전남도 목포시 온금동 53번지
피상속인 망 이동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년단481호로 신청하여 2018년 11월 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12월 7일
상속인: 김식자(450215-XXXXXX)
목포시 상동로 63, 108동 502호(상동, 상동1단지 아파트)
신고기간: 2018. 12. 7. ~ 2019. 2. 17.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김식자의 주소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가온정보기술(이하 '갑')은 주식회사 지성컴퍼니(이하 '을')와 2018년 12월 04일 각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18년 12월 07일
갑 주식회사 가온정보기술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93, 206호(당정동)
대표이사 민 유 선
을 주식회사 지성컴퍼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94, 2층(우산동)
대표이사 이동 근

한국 여자핸드볼, 장신 카자흐 넘는다

아시아선수권 오늘 준결승전
승리 팬 결승서 일본 만날 듯
4회 연속 우승 2경기 남아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대회 4회 연속 우승에 두 경기만을 남겨뒀다.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진행 중인 제17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조별리그를 4전 전승으로 마쳤다. B조 1위로 4강에 오른 한국은 7일 A조 2위 카자흐스탄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우리나라는 앞서 열린 16차례 아시아선수권에서 13번이나 정상에 오른 아시아 최강이다.

한국 외에 이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나라는 카자흐스탄(2002·2010년), 일본(2004년)이 전부다. 이들 나라는 모두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아시아선수권 타이틀을 가져갔다.

공교롭게도 한국이 4강과 결승에서 차례로 만날 가능성이 큰 나라가 바로 카자흐스탄과 일본 순이다.

우리가 준결승에서 카자흐스탄을 물리치면 9일 결승에서 일본-중국 경기 승자를 만나게 되는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일본이 다소 앞서 있기 때문이다.
4강 상대 카자흐스탄은 조별리그 A조에서 3승 1패를 기록했다.

일본과 최종전에서 24-31로 졌지만 이라나 알렉산드로바와 올라 탕카나의 키가 183cm나 될 정도로 높이가 강점이다. 우리나라에도 강은혜(부산시설공단)가 키 185cm, 류은희(부산시설공단)와 김진이(경남개발공사)가 180cm이지만 전체적인 신체 조건은 카자흐스탄이 좋다.

다만 올해 8월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카자흐스탄을 34-22 낙차로 따돌린 바 있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한수 위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 유럽에서 활약하는 스나미 유리, 이케하라 아야카, 가메타니 사쿠라 등을 총동원했다.

2019년 세계여자선수권과 2020년 하계올림픽을 연달아 개최하는 일본은 2017년 초부터 덴마크 출신 울리크 커를리 감독을 선임해 기량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 이번에 소집된 일본 해외파 선수들도 모두 덴마크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한국 여자핸드볼이 8월 아시안게임에 이어 아시아선수권에서도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재확인할 수 있을지 이번 주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V리그 별들은 누구?

울스타전 온라인 팬 투표 오늘부터 25일까지 실시

프로배구 '별들의 잔치' 울스타전에 나설 선수들을 선정하는 팬 투표가 진행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도드람 2018-2019 V리그 울스타전 온라인 팬투표를 7일부터 25일까지 연맹 홈페이지(www.kovo.co.kr)를 통해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울스타전 팬 투표는 울스타팀당 레프트, 라이트 구분 없이 공격수 3명, 센터 2명, 세터 1명, 리베로 1명 등 총 7명씩 뽑을 수 있다.

균형 있는 선발을 위해 구단별 최대 3명씩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대상은 2라운드 종료 기준, 팀 경기수의 50% 이상 경기를 3세트 이상 출전한 선수로, 투표 이후 전문위원회가 경기력 보장을 위해 추가 선발한 인원을 포

함한 최종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시즌과는 달리 이번 울스타전에는 남녀부 13개 팀 감독들이 투표 없이 전원 울스타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울스타 선수들은 지난 시즌 최종 성적 기준으로 K-스타(남자부: 대한항공, 삼성화재, 한국전력·여자부: 한국도공공사, 현대건설, KGC인삼공사)와 V-스타(남자부: 현대캐피탈, KB손해보험, 우리카드, OK저축은행·여자부: IBK기업은행, GS칼텍스, 흥국생명)로 출전한다.

이번 울스타전 온라인 팬 투표에 참여한 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이 제공될 계획이다.

울스타전은 내년 1월 20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1관 국가부도의 날 2관 국가부도의 날 3관 후드 4관 국가부도의 날 5관 성년환소 6관 보헤미안 랩소디 9관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투 프린츠 7관 써니케틀, 보헤미안 랩소디, 거미줄에 걸린 소녀 8관 써니케틀, 완벽한 타인, 성년환소, 베일리 어게인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YE MAEK 예매21년 소리와 선율을 그림에 담다 2018. 11. 28. - 12. 30.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2018미술단체 공모전 예매21년, 소리와 선율을 그림에 담다 11.28(수) ~ 12.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12.14(금)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율 12.18(화)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교향악단 Wish your merry X-mas 12.24(월)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